



# 보도자료



(주소) 1707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전화) 031-270-8601 (팩스) 031-283-5364

| 배포일   | 2025.11.19 | 쪽수 | 사진 | 기관 도메인주소                                     | 자료 문의                                       |
|---|------------|----|----|--|---|
| 보도일   | 2025.11.20 |    |    |  |   |
| 경기도어린이박물관,<br>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하반기<br>공유학교 운영 성료 |            | 2  | 2  | <a href="http://gcm.ggcf.kr">gcm.ggcf.kr</a> | 부서 : 학예운영실<br>담당 : 김수성<br>전화 : 031-270-8634 |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하반기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운영 성료

### ▶ 10월 25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 3~4학년 대상 교육연극 프로그램 ‘앞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교육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박균수)은 하반기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프로그램 ‘앞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상설전시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연극 수업이다. 프로그램은 총 4주, 12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보았다. 이후 직접 만든 대본으로 연극 무대를 구성하고 연기까지 해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프로그램에는 용인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4명이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선정되어 참여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와 조 편성을 진행한 뒤 3층 상설전시를 관람했다. 이어 ‘또 다른 나’의 자화상을 그리고 발표하며, 그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정지동작(타블로)로 표현했다.

둘째 주에는 연극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연극 놀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준비된 ‘지속 가능한 미래’ 장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오늘’이라는 4컷 만화를 구상했다. 셋째 주에는 연극 무대 구성 요소를 배우고, 조별로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지 논의했다. 무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며 실제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 주에는 조별 연극 무대를 완성하고 간단한 연습을 거쳐 초대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4주

간의 교육연극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공유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4주동안 연극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라는 소감을 밝혔고, 마지막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미래의 생태환경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좋다”, “프로그램 기간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수업을 기획한 김수성 학예연구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더욱 관심 두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균수 관장은 “이번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극 무대를 기획하고 연기를 해본 일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 사진제공 : 경기도어린이박물관